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정수 (Youtiful 불성형외과 원장)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한 국제 여의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의료봉사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이제라도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 은사와 재물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의 분주함, 과도한 경쟁 등은 그 길을 아주 좁은 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다.

강남에 성형외과를 개설한 지 3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만 가면 줄음이 쏟아져 예배시간 내내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새신자반이 끝나갈 무렵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6개월도 채 안 된 초신자였던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고난주간에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부활주일 예배 중 당시 교제 중이었던 아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_고후 5:17

동일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는 고백처럼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두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와 기쁨에 취해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 고객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병원 상황이 힘들 때에는 네 명의 환자들이 수술 중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시오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 진학 후 주의 길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돌보라

언젠가 의술로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안이 들어와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한참 후에나 가능할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담당 의사들은 둘만 건강하게 낳아 키울 것을 권면하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네 아이 모두 1kg을 조금 넘는 체중이지만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백일 정도 되어서는 정상 아이들의 체중과 발육을 따라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네 명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맡겼으니 그렇지 않은 저개발국가의 구순구개열 아기들을 돌보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순종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에도 의료봉사를 갔는데, 라오스에서는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던 날 첫 수술을 마치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열이 나더니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지속되었고 구토가 나서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땀기열 정도로만 여기고 링거로 간신히 수분 공급만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야 급성 A형 간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달이 심해서 간 검사를 해보니 GOT, GPT 수치가 1900, 16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외 봉사로 밀려 있던 환자를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잠 16:9

의료봉사를 가려고만 하면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고심해서 내려야 할 결정들과 바쁜 일정들이 압박해 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In God's Image) 창조되었습니다(창 1:26~27). 즉, 의롭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영혼의 그릇인 육체도 창조 당시의 완전한 건강을 상실했는데, 그것이 곧 질병과 죽음입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서원된 의료인들에게는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세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저개발국가나 재해 지역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슬람 국가로 불교 국가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나아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고 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저희의 발걸음은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남과 동역의 축복

- 해외 의료선교 단체인 G.I.C.의 설립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_빌 2:2-5

이렇게 단발적으로 의료봉사를 하던 중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선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향 후배이면서 고대 후배이기도 한 고대의 박관태 교수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몽골에서 4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기면서 2,000건이 넘는 복강경수술을 집도하고 의료 기술을 전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우리는 치료자 하나님(I am the Lord, who heals you, 창 15:26)을 모토로 기형이나 질병, 빈곤이나 재난 등으로 소외된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구호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의료봉사 단체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Global Image Care”라 정하였습니다. 창세기 1:27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동역자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1. 기형, 질병 및 가난으로 소외된 전 세계 이웃들에게 희망 주기
2. 각자의 재능대로 봉사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 나누기
3. “Thanks, Korea”에 기여하기



지금은 개인의 의료봉사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던 동역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나눔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필요했던 다양한 의료 기구들과 자본, 일꾼이 준비되었고 기도로 후원하는 동역자도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기도로 동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현재 Youtiful 불성형외과 원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을 거쳐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이정수 원장님이 소개합니다 해외 의료선교 단체 G.I.C

G.I.C. 2013년 이후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략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
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_사 43:19

Competence.

효과적인 의료선교의 핵심은 의술의 전문성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말은 이미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일자리 제공, 선진 기술 전파 등으로 다가가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료선교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실력뿐 아니라 헌신된 의료진들을 영입하여 이중 일부는 직접 파송할 계획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을 파송할 예정이며 각지에 협력할 의료 선교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Collaboration.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선진의료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전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교회와 선교사들과도 협력합니다.

Convergence.

복음전파의 역할을 할 교회, 대학병원, 그리고 전방에 파견된 전문 의료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등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입니다.

의료선교 프로젝트

미얀마 프로젝트

VISION: 5.1000.5000

5년간 1,000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를 수술하고 그들의 부모형제 5,000명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1년에 200명을 수술해야 목표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얀마 의사 3명이 고대병원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아과 의사 선교사와 언어 치료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언어치를 진단하고 수술 후 언어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고대병원과 GIC, 서울 드림교회가 협력할 것이며, 환자와 환자가족 대상의 천국 잔치를 연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심장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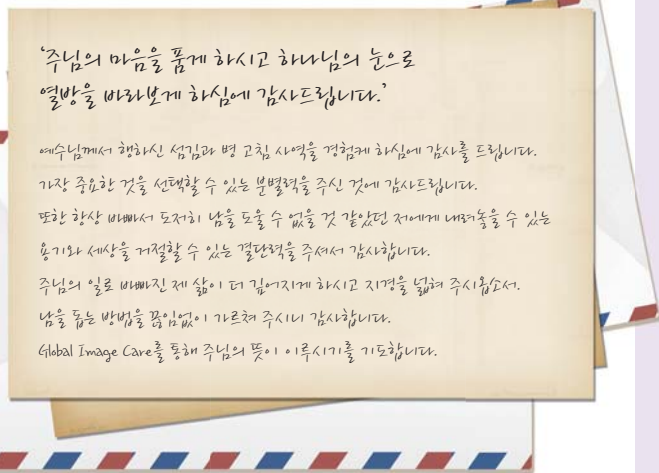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 8명을 초청하여 수술하였으며 2013년 5월까지 앞으로 12명의 어린이를 방문하여 수술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는 2차 심장병 환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이티는 G.I.C.의 박관태 이사가 네 차례 의료봉사와 문화 교류를 진행했던 곳으로 현지선교단체인 DF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드 보건소 건립

2012 하반기에 건축봉사단 Bami와 3개월간의 도면 미팅 후 보건소 계획안 확정하였습니다. 신반포교회와 협력하여 2013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 음악회

이를 위한 후원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자선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프리마돈나 신영옥 씨의 아이티 심장병 돕기 콘서트와 탤런트 김원희 씨를 주축으로 하는 미얀마 언청이 환자를 돕기 위한 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드 병원 건립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기획 중입니다.



편집자 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 관점을 소개하다보니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본지가 특정한 입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